



표지인물과의 만남-삼보이엔텍(주) 김진우 대표이사

“환경관리에 있어 최고의 기술로 동반자 될 터”



21세기가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그 세기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기회를 만드는 사람, 시행착오를 겪으며 환경기술개발로 탄탄한 미래를 만드는 사람, 질소·인처리 기술로 조선일보 환경과학 기술부문 대상을 받으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삼보이엔텍(주) 김진우 사장을 만나 국내 환경기술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늦었지만 조선일보 ‘환경과학기술부분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였는데, 상을 받게 되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든지 상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드물 것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국가 환경 및 환경산업, 나아가서는 지구환경에 조금이나마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소·인처리기술로 이번 상을 수상하셨는데 삼보이엔텍의 회사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인으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85년 서울삼보산업을 설립했습니다. 89년 법인으로 전환하고 수질·대기오염방지 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96년에는 독일 Clausthal 공과대학과 HCR 기술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10월 HCR에 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280만불의 투자 승인과 더불어 해외시장 개척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3월 삼보이엔텍(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노르웨이 HIFOTECH사의 하수고도처리 시스템관련 기술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직 개발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HCR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체계화된 마케팅 및 우수한 인력 확보로 내부조직의 역량강화, 대형건설사와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 모든 공사에 HCR을 적용시켜 사전환경오염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1세기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시장을 시작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환경관리에 있어 최고의 기술로 승부하기 위해 전사원을 기술진으로 배치하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100억원의 매출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경영철학은 무엇인지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환경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이나 국가경쟁력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환경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화·화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을 때 회사와 국가의 경쟁력이 확보되리라 봅니다.

▶환경벤처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적으로는 기업의 환경마인드 부족이 환경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산만 중요시하고 그에 따른 오염부산물에 대한 책임회피는 이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실례로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질소·인 규제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각 기업이 어느 정도 투자모색과 더불어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밀화학 및 화력발전소, 안료중간체 등 대부분의 업체들은 검토에서 시공까지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책적인 보류를 믿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환경풍토, 생산보다 환경, 이익보다 사회적인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문화 창출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내 환경기술을 나름대로 평가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국내의 환경산업구조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부합되는 기술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조선일보 '환경과학기술부문 대상' 시상식(뒷줄 좌측에서 세번째)

다. 점차로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그에 따른 무역규제 또한 강조되는 시대이지만 국내기술로는 미흡합니다. 모방에서 창조가 나온다고 하지만 모방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단계로 보아집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각 기업에서 연구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절실성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기술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존 영세한 환경산업기반을 확대하고 기술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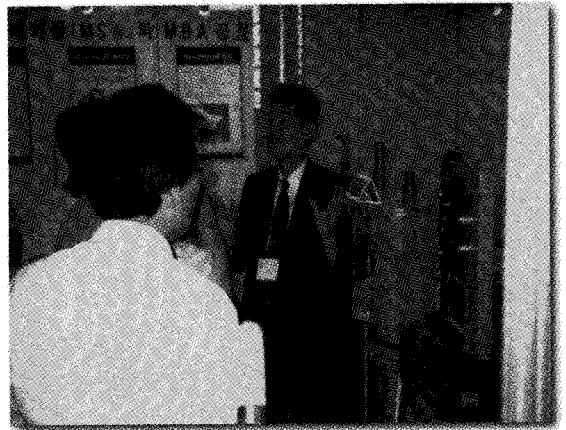
▶전문가 못지 않은 환경지식을 겸비하고 계실텐데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정책을 평가한다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70~80년대에는 국가적으로 환경산업에 신경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조금씩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환경은 정부차원에서 대

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경제논리가 더 설득력 있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이고 과감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산업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 환경산업현황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환경산업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고도경제 기반시설에의 투자는 자본 소비형이라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 둘째, 환경산업기술인력의 자격수준별 수급불균형이 심하고 신규배출인력의 질적수준과 현장적응력이 부족한 인력문제, 셋째, 공급위주의 자원관리정책이 추진됨으로써 투자효율성이 저하되고 성장 제일주의의 발상으로 환경문제에의 근원적 접근보다는 미봉책 마련에 치중되어 확대되고 있는 환경산업 시장규모 보다 영세한 환경기업 규모 등이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효율·저비용의 환경기술개발을 통한 환경기반시설에의 투자가 곧 이익창출이라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업, 둘째, 지속적인 환경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이 연계한 연구인력 및 전문인력을 수용하여 일하는 개인에게 자기실현의 장을 제공하는 기업, 셋째, 성장제일주의의 추구를 위한 저비용의 에너지 공급정책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경제주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국민육구 총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급과 수요의 조화로운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업을 통하여 선진국형 환경전문업체를 건립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인 규제조치의 강화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은 물론 지구 환경보전에 있어 그린라운드를 통한 국가 대 국가의 무역규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환경산업 발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비전은 80년대부터 말해왔지만 환경산업은 이제 시작입니다.

▶오랫동안 환경일을 해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해외시장개척 초창기 온두라스 수주를 위해 뉴욕을 거쳐가게 되었는데 길을 잘못들어 13번 할렘가에 내려 죽을 뻔한 적 있습니다. 대부분 어려운 시절 해외 마케팅을 위해 출국해서의 어려움들이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할 때 기쁨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환경관리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환경관리인 출신입니다만 스스로의 의지대로 환경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화시키겠다는 마음보다는 지금 만큼의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정직과 성실로 실천할 때 좀더 나은 환경이 되리라 보며, 후세에게 빌려쓴다는 말대로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니다.

김진우 대표의 주요약력

● 학력

- 1988. 2 서울산업대 환경공학과 졸업
- 1992. 3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 석사
- 2000. 3 동아대학교 환경대학원 입학(박사과정)

● 경력

- 1974. 11~77. 5 삼익주택(주) 근무
- 1977. 6~89. 5 대한염직(주) 환경관리인
- 1989. 5 서울삼보산업(주) 설립
- 2001. 현재 삼보이엔텍(주) 대표이사

● 기타

- 소각기술협회 재무이사
- 한국환경산업협회 이사
- 폐기물학회 회원
- 환경벤처협회 정책이사
- 동아환경장학재단 이사

